

# 전주 행정구역 조정 주민투표 논란

### 완산·덕진 시의원들, 중앙정치권 인사들 섯범 제각각에... 시, 선거 전까지 조정 작업 마칠 방침

전주시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4-5 역원의 주민 협세를 투입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전주시가 여러해 전부터 준비해 온 행정구역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급하게 서두르는 모양새를 띠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구·동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의회와 12일과 19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조율을 나눴다.

하지만 의원들의 생각이 달라 의견을 조율하는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지력으로 사업비 4~5억원 들여서라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 조정에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전주시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일관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오죽하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시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효자동과 동산동 주민투표를 관장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방안을 강구해왔었느냐며 완산지역 시의원들과 덕진지역 시의원들의 섯범이 달라 내놓고 뒤라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6월 말 현재 완산구의 인구는 36만752명이고 덕진구의 인구는



“우리가 원하는 놀이는요?” 전주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임실청소년수련원에서 아동생각나눔단과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66명이 어린이옹호활동가 캠프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주제로 미니운동회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놀 권리를 생각해보고 팀별로 열린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29만825명임에도 자신들과 함께할 시의원 숫자가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의회 밖에 있는 중앙정치권 인사들의 섯범 또한 각기 달라 전주시가 이들 입맛을 다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시장과 시의장이 책임을 전가해 애꿎은 시민만 뭉땅 허비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주시가 여러 날 고심 끝

에 마련해 놓은 방안대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원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더라도 대의를 위해 진밀히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아니 될 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는 시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와 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선거 전까

지 조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시는 통폐합되는 소규모 동에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속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별로 1개동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강성대, 전주 명예시민 됐다

### 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강성대 한국은행 전 전북본부장이 전주시의 명예시민이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강 전 본부장에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다음달 1일자로 부산본부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강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7월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역 내 금융기관 예금,대출과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꾸준한 지역경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강 전 본부장은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관 형성과 다양한 경제 관련 체험



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과 시 각장엔인 점자도서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 공헌활동도 전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명예시민으로 전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며, 언젠가 전주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진북동, 마을계획 수립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

전주시 진북동 원도심 마을계획 추진단은 지난 27일 진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모색코자 관내 공동주택 자치회장,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민관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원도심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과 공동주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진단과 공동주택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마을의제 발굴에 앞

장서줄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그간 원도심 마을계획 추진단은 서울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세 차례 역량강화 교육, 진북동 마을조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습을 하면서 함께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 마을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했으며, 오는 10월의 주민총회를 위해서는 이 같은 간담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 /인재용 기자

## 첫마중길 '전주시민합동체조'

전주의 첫 인상을 바꾸기 위한 첫마중길에서 시민들이 생활체조의 진수를 뽐냈다.

28일 오후 7시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환영하고 전주의 생활체조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주시민합동체조'가 펼쳐졌다.

첫마중길에서 하나된 몸짓으로 수놓은 합동체조에는 생활체조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동호인 등 전주시민 15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시민들은 몸 풀기 체조 후 전주이리랑 등 6곳의 반주에 맞춘 군무와 같은 몸동작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됐다.

홍봉성 전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문화의 도시 전주를 널리 홍보하고 전주역 주변을 사람, 생태,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잠재했던 역세권 경제도 되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시, 100대 국정과제 적극 대응 나선다

### 김승수 시장, 현안사업 추진동력 장착 기회로 삼아야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연계사업을 발굴기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국가사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논리개발과 보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에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공약에 대해 지자체

와 함께 보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합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이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반영돼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특정지역 현안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만큼 기존에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연관 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

쳐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공약에 대해 올 연말까지 수립할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전주시 현안사업을 주요과제로 반영 또는 연계되도록 논리보강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핵심과제와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그간 전주시가 추진해 온 사업들 중에는 현정부의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에 잘 대응한다면 현안사업에 추진동력을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보험범죄 척결 업무협약

## 고속도로 견인차 법규위반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28일 6개 협약기관과 2개 협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를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과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전북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북경찰청, 금융감독원, 전라북도청,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8개 기관 대표가 참석해 각 유관기관이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여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찰과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소통방 운영, 각 기관 보험범죄 대응 우수 사례 및 우수사례 공유, 기관별 협조사항 및 요청사항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협조체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상민 기자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는 오는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역주행은 물론 출동장면을 SNS로 생중계까지 하는 등 견인차들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난폭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도로공사, 견인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고충청취 및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VMS(문자현출)활용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길질주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은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상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